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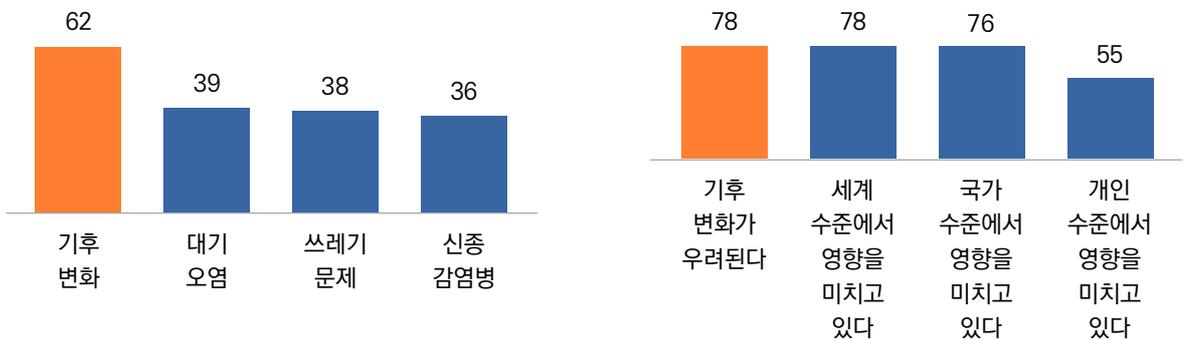
2. 세계 9개국 환경 인식 조사



세계 주요 9개국 국민,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환경 문제는 ‘기후 변화’ 62%!

- 글로벌 조사기관인 칸타퍼블릭이 세계 9개 주요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조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주요 9개국 국민의 62%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로 ‘기후 변화’를 꼽았다. 다음으로 ‘대기 오염’ 39%, ‘쓰레기 문제’ 38%, ‘신종 감염병’ 36%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.
- 또한 기후 변화가 ‘세계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’ 78%, ‘국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’ 76%, ‘개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’ 55%로 기후변화가 국가, 사회 뿐 아니라 개인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(주요 9개국, 중복응답) [그림]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우려 수준 (%)



*자료 출처 : Kantar Public, 'PUBLIC Journal 04 Our Planet issue: Accelerating behaviour change for a sustainable future', 2021.10.
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, 네덜란드, 폴란드, 싱가포르, 뉴질랜드 9개 국가 18세 이상 성인, 국가 당 1,000명씩 총 9,000명, 2021.9.22.-10.1)
; 한겨레신문, 2021.11.08. "나는 잘하는데..." 기후위기 행동 세계인 인식조사 '너는 왜...'

● 나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, 정부, 미디어, 기업, 지역사회는 나보다 못하다

- 응답자 본인 포함 주요 사회적 주체들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물었는데, 응답자 본인의 경우 36%가 '기여하고 있다'고 응답한 반면 미디어, 정부, 이웃사람, 중앙정부,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못한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. 특히 '대기업'에 대해서는 13%로 매우 낮았다.

[그림] 지구와 환경 보호 행동에 대한 평가(10점 만점에 8-10점 응답 비율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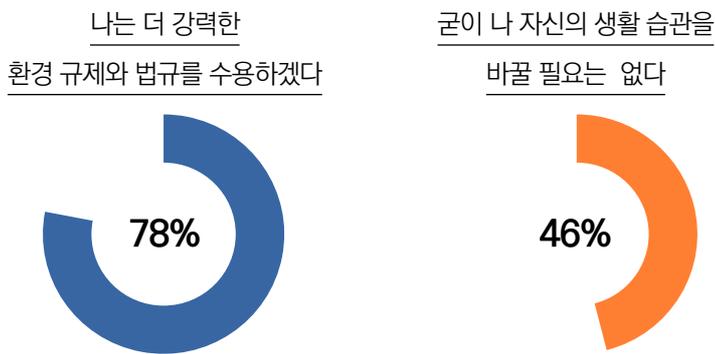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Kantar Public, 'PUBLIC Journal 04 Our Planet issue: Accelerating behaviour change for a sustainable future', 2021.10.
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, 네덜란드, 폴란드, 싱가포르, 뉴질랜드 9개 국가 18세 이상 성인, 국가 당 1,000명씩 총 9,000명, 2021.9.22.-10.1)

● ‘환경 규제와 법규 수용하겠다’ 78%,
그러나 ‘굳이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’ 46%

- 환경 보존을 위해 78%가 ‘나는 더 강력한 환경 규제와 법규를 수용하겠다’고 응답해 더 높은 규제와 법규를 수용하는데 의지를 보였다. 하지만 그에 반해 46%는 ‘나는 굳이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’고 응답해 규제와 법규 수용 의견과 달리 본인의 습관변화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환경 보존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세계인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.

[그림] 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의 더 강한 규제와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한 인식



*자료 출처 : Kantar Public, 'PUBLIC Journal 04 Our Planet issue: Accelerating behaviour change for a sustainable future', 2021.10.
(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, 네덜란드, 폴란드, 싱가포르, 뉴질랜드 9개 국가 18세 이상 성인, 국가 당 1,000명씩 총 9,000명, 2021.9.22.-10.1)